

“월급 적어도 좋다, 일자리만 다오”

광주 ‘사회적 일자리 채용 박람회’ 3천여명 몰려

2일 광주시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 4층 컨벤션홀. 최악의 취업난 속에 ‘사회적 일자리 채용박람회’가 열리고 있었다.

광주시와 광주지방노동청이 주최하고 광주경제살리기운동본부가 주관한 이날 박람회장은 오전부터 물려든 구직자들로 북적였다.

이날 박람회를 찾은 구직자는 어립적아 3천여명, 구직자 대부분은 40~50대를 넘어서 중·장년층이었지만 근데군데 20대 청년 구직자도 눈에 띄었다. 구직자들은 안내 책자와 현수막에 적힌 각종 채용 정보 등을 꼼꼼히 챙겨며 취업에 대한 열의를 보였다.

송모(30·광산구 월곡동)씨는 “공무원 시험을 3년 동안 준비했지만, 번번이 낙방한데다 올해부터는 공무원 수까지 줄인다고 해서 공무원 시험을 포기했다”며 “잔밥 더운밥 가릴 상황이 아니어서 행사를 찾았다”고 말했다.

개별면접이 진행된 각 부스 앞에서는 구직자들이 용모를 다듬느라 정신이 없었고, 일부는 긴장된 모습으로 조조하게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모(51·광산구 우산동)씨는 “수년간 운영해 오던 고물상을 땅주인이 비워달라고 하는 바람에 문을 닫게 돼 출자에 실업자 신세가 됐다”며 “아내가 한달에 100만원 정도 벌어오는 돈으로 초·중학교 다니는 두 자녀와 생활하기에는 너무 빠듯하다”고 조조해 했다.

이날 행사에서 채용을 목표로 했던 일자는 1천56명. 채용기관은 (사) 광주국제영화제조직위원회를 비롯, 광주YWCA·누리문화재단 등 광주·전남지역 36개 시민·사회·종교·복지 단체들이다.

이날 오후 5시까지 진행된 행사를 찾았던 구직자들은 1년간 계약직으로 705명이 추후 2차 면접을 통해 일자리를 얻게 된다.

으며, 이중 1천288명이 면접을 치렀다. 이 가운데 308명이 현장 면접을 통해 채용됐고, 1차 면접을 통과한

705명이 추후 2차 면접을 통해 일자리를 얻게 된다.

광주지방노동청 관계자는 “애초 예상했던 1천여명보다 월전 많은 구직자가 박람회장에 몰렸다”며 “이날 채용된 구직자들은 1년간 계약직으로 일한 뒤 각 기관별로 재심사를 통해 3년간 일할 수 있고, 해당기관이 사회적 기업으로 인정받는다면 기관과 별도의 고용계약을 맺고 계속 근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사회적 일자리=사회적으로는 유용하지만 수익성이 낮아 민간기업이 참여하기 어려워 활성화되지 못하기 때문에 정부의 예산지원을 통하거나 비영리단체에 의해 창출되는 일자리를 말한다.



2일 광주시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사회적 일자리 채용 박람회’에 참여한 구직자들이 구인 기관별로 마련된 부스에서 취업 상담을 받고 있다.

/김형호기자 kh@kwangju.co.kr

“학교급식 첨가물 어린이 건강 위협”

광주 참교육학부모회 “방부제·액상과당 등 검출”

광주시 친환경급식 지원대상 학교의 식재료에서 학생들의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첨가물이 다수 발견됐다.

2일 참교육학부모회 광주지부에 따르면 지난 9월부터 광주시 친환경급식 지원대상 40개 초·중·고교의 급식 가공식품 사용실태를 파악한 결과 후식으로 가장 인기있는 요구르트에서 당도가 높고 체내로 흡수되면 포도당으로 변하지 않고 바로 간으로 가는 것으로 알려진 액상과당이 발견됐다.

또 뇌 건강에 영향을 미치고 비만과 총치의 원인이 되는 아스파탐과 사카린, 수크랄로스 같은 합성감미료가 첨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험, 소시지, 베이컨 등 육가공식품에서는 발암물질로 알려진 아질산나트륨이 발견됐고, 진미채, 어묵, 단무지에는 방부제인 솔빈산칼륨이 들어 있었다.

아이들의 간식거리로 인기가 좋은 어묵, 만두, 단무지, 소시지, 햄, 돈가스에는 두뇌 장애, 학습력 저하, 비만 등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진 L-글루타민산나트륨(MSG)이 첨가된 것으로 확인됐다.

주재료에 대한 실태 조사 결과 면류에 들어가는 밀, 식용유의 콩, 각종 장류(된장, 고추장, 간장)에 쓰이는 재료 대부분이 수입품인 것으로 확인됐다.

친환경 식재료를 사용하는 학교 32곳을 조사한 결과, 전체 식재료 가운데 친환경 식재료의 비중이 30% 이상인 곳은 2곳에 불과했고 나머지는 20%를 밟았다.

친환경 식재료 사용이 어려운 이유로는 ▲원활하지 않은 수급 상태 ▲높은 단가 ▲계절에 따라 심한 금액 차이 등이 지적됐다.

광주의 24개 고교 매점에서는 다양 한 텁선음료와 가공 포장된 피자빵, 햄버거빵, 소시지빵 등이 아무런 제재 없이 판매되고 있었고 학교 매점에서 판매가 금지된 컵라면도 7개 학교에서 판매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정상필기자 camus@kwangju.co.kr

글로벌 금융위기 등에 따른 지역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광주시교육청이 올해보다 두배 이상 늘어난 해외연수비를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해 반芻을 사고 있다.

2일 광주시의회가 내놓은 ‘시교육청의 2009년 예산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내년도 해외연수경비로 16억7천만원을 편성했다.

구체적인 연수 계획은 교육위원회

가 교육위원 국외연수여비로 1천400만원을 책정한 것을 비롯, 영어교사 국외연수비 3억7천800만원, 소년체전 유공 국제체육연수 1억5천만원, 지방공무원 국제마련연수 1억6천만원, 초·중등교원 및 전문직 국제마련연수비 1억9천800만원, 수업우수교사 해외연수지원 1억원 등 모두 32건이다. 이는 올해 7억9천200만원(26건)보다 무려 8억7천700만원이나 증가한 것이다.

이와 관련 광주시의회는 “정부가 해외연수장을 자체를 요청하면서 각급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무원들의 불필요한 해외연수장을 통해 공무원의 해외연수를 자체화하는 경향으로 재검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냈다.

교육청의 해외연수 경비 편성과 관련, 지역민들 사이에서도 경제 위기 극복에 공직사회가 앞장서지는 못할 망정 나몰라라 하는 것 아니냐는 비난의 목소리가 높다.

김후진(민주·북구 2)의원 등 시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소속 의원들도 이날 교육청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통해 “경제 위기 극복에 공직사회가 앞장서지는 못할 망정 나몰라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한바 “고통 분담자원에서 소모성 해외연수를 자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시교육청이 요구한 해외연수 경비의 44%인 7억3천319만원을 삭감했다.

/김지민기자 dok2000@kwangju.co.kr

5·18기념재단 펀드 투자 억대 손실

(재)5·18기념재단이 국민성금 등을 통해 조성한 기금 일부를 펀드에 투자, 억대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시의회 김성숙(민주·서구 3) 의원은 2일 2009년 광주시 예산안 및 기금 운영 계획 등을 분석한 결과, “(재)5·18 기념재단이 지난해부터 재단 기금 일부를 펀드에 투자했다가

지면서 현재까지 1억원이 넘는 손해를 냈다”고 밝혔다.

기념재단은 지난 1월 전체 기금 81억원 가운데 일부인 7억2천580만원을 한 증권사의 주식형펀드 2개 상품에 투자한 것을 비롯, 지난해부터 기금으로 주식형펀드에 투자해 1억원이 넘는 손실을 입었다는 것이 김 의원 주장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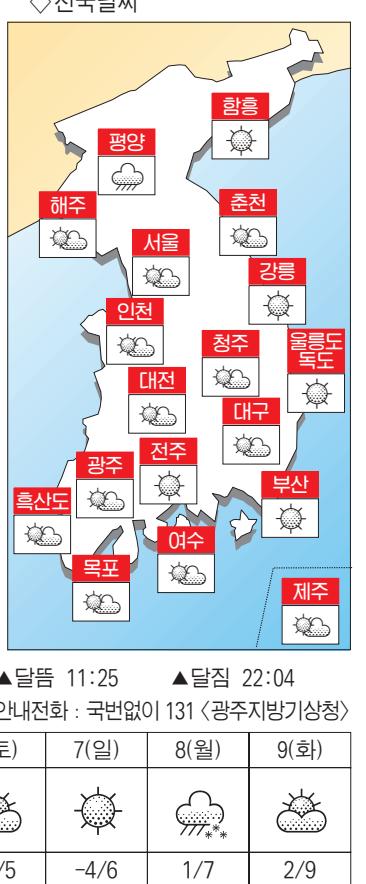
/김지민기자 dok2000@kwangju.co.kr

광주시교육청 경제 위기 극복은 남의 일?

해외연수비 두배 증액 편성 빈축

아침 안개 ‘조심’
맑은 후 오후부터 점차 구름이 많이
끼겠다.

12월 3일
(음 11월 6일)
◆전국날씨



서울대·목포해대도 등록금 동결

최근 경기불황에 따른 학생들의 학비 부담 경감을 위해 고려대와 이화여대, 서강대, 호남대 등 일부 대학이 등록금 동결을 선언한 가운데 서울대와 한국외대, 성균관대, 목포해양대도 내년 등록금을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2일 현재 국립대 중에서 등록금 동

결 의사를 밝힌 것은 서울대가 처음이며, 광주·전남지역 대학중에서는 호남대와 목포해양대가 동결의사를 밝혔다.

한국외대도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최근의 경제위기에 따른 가계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내년도 등록금을 동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광주·전남 논술학원비 타 지역의 절반

전국 지역별 최고 60배 차이

광주·전남의 논술학원 비용이 수도권 등 다른 지역에 비해 절반 수준이고, 지역 내에서는 학원에 따라 2~6배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적으로는 가장 싼 곳과 비싼 곳의 논술학원비가 최고 60배까지 차이가 났다.

이 같은 결과는 한국 YMCA전국연맹이 최근 시율을 비롯, 광주·여수 등 전국 18개 지역의 논술학원 378곳(대입수험생 대상 54곳, 고등학생 대상 222곳, 중학생 대상 280곳, 초등학생 대상 233곳·이상 중복계산)을 대상으로 실시한 학원비 실태조사에서 드러났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초등학생 논술학원비(이하 1시간 기준)의 경우 광주와 전남의 평균은 6천174원, 여수는 6천228원 등으로 전국 평균 1만3천280원의 절반 수준이었다.

중학생 논술학원의 평균비용은 광주 8천268원, 여수 1만98원으로 전국 평균 1만6천44원보다 낮았다. 광주지역 학원간 최소·최대 비용 차이는 4.3배, 여수는 6.5배였다.

광주와 여수지역 고교 논술학원비 시간당 평균은 1만714원과 1만2천424원, 전국 평균치는 1만8천997원이었다.

광주에서 가장 싼 학원은 6천250원 원으로, 광주·전남·여수 등 전국 평균 1만6천원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전국적으로 전국에서 가장 비싼 학원비를 보인 천안은 1만4천원과 2.6배 차이를 보였다.

전국적으로 전국에서 가장 비싼 학원비를 보인 천안은 1만4천원과 2.6배 차이를 보였다.

전국적으로 전국에서 가장 비싼 학원비를 보인 천안은 1만4천원과 2.6배 차이를 보였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초등학생 논술학원비(이하 1시간 기준)의 경우 광주와 전남의 평균은 6천174원, 여수는 6천228원 등으로 전국 평균 1만3천280원의 절반 수준이었다.

중학생 논술학원의 평균비용은 광주 8천268원, 여수 1만98원으로 전국 평균 1만6천44원보다 낮았다. 광주지역 학원간 최소·최대 비용 차이는 4.3배, 여수는 6.5배였다.

광주와 여수지역 고교 논술학원비 시간당 평균은 1만714원과 1만2천424원, 전국 평균치는 1만8천997원이었다.

광주에서 가장 싼 학원은 6천250원 원으로, 광주·전남·여수 등 전국 평균 1만6천원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전국적으로 전국에서 가장 비싼 학원비를 보인 천안은 1만4천원과 2.6배 차이를 보였다.

전국적으로 전국에서 가장 비싼 학원비를 보인 천안은 1만4천원과 2.6배 차이를 보였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초등학생 논술학원비(이하 1시간 기준)의 경우 광주와 전남의 평균은 6천174원, 여수는 6천228원 등으로 전국 평균 1만3천280원의 절반 수준이었다.

중학생 논술학원의 평균비용은 광주 8천268원, 여수 1만98원으로 전국 평균 1만6천44원보다 낮았다. 광주지역 학원간 최소·최대 비용 차이는 4.3배, 여수는 6.5배였다.

광주와 여수지역 고교 논술학원비 시간당 평균은 1만714원과 1만2천424원, 전국 평균치는 1만8천997원이었다.

광주에서 가장 싼 학원은 6천250원 원으로, 광주·전남·여수 등 전국 평균 1만6천원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전국적으로 전국에서 가장 비싼 학원비를 보인 천안은 1만4천원과 2.6배 차이를 보였다.

전국적으로 전국에서 가장 비싼 학원비를 보인 천안은 1만4천원과 2.6배 차이를 보였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초등학생 논술학원비(이하 1시간 기준)의 경우 광주와 전남의 평균은 6천174원, 여수는 6천228원 등으로 전국 평균 1만3천280원의 절반 수준이었다.

중학생 논술학원의 평균비용은 광주 8천268원, 여수 1만98원으로 전국 평균 1만6천44원보다 낮았다. 광주지역 학원간 최소·최대 비용 차이는 4.3배, 여수는 6.5배였다.

광주와 여수지역 고교 논술학원비 시간당 평균은 1만714원과 1만2천424원, 전국 평균치는 1만8천997원이었다.

광주에서 가장 싼 학원은 6천250원 원으로, 광주·전남·여수 등 전국 평균 1만6천원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전국적으로 전국에서 가장 비싼 학원비를 보인 천안은 1만4천원과 2.6배 차이를 보였다.

전국적으로 전국에서 가장 비싼 학원비를 보인 천안은 1만4천원과 2.6배 차이를 보였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초등학생 논술학원비(이하 1시간 기준)의 경우 광주와 전남의 평균은 6천174원, 여수는 6천228원 등으로 전국 평균 1만3천280원의 절반 수준이었다.

중학생 논술학원의 평균비용은 광주 8천268원, 여수 1만98원으로 전국 평균 1만6천44원보다 낮았다. 광주지역 학원간 최소·최대 비용 차이는 4.3배, 여수는 6.5배였다.